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남북통일 기원 미사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2023년 6월 25일 주일 (2023. 6. 25.)

* 오늘 전례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독서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일치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신명기 30, 1-5):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2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3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또 너희를 가없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흠여 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4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5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4,29-5,2):

형제 여러분, 29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0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시다.

31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

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복음(마태복음 18,19ㄴ-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9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흠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 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흠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주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분열과 불화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며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남북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서로 맞서고 헐뜯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한민족으로서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로 나아가게 하소서.

3.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이 가져온 미움과 분열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를 굽어살피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와 배려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사랑과 일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겨레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성가 ♪

입당 : 39(하나 되게 하소서)

봉헌 : 218(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 176(믿음 소망 사랑)/188(천사의 양식)

파견 : 199(예수 마음)

특송 : Ave verum- E. Elgar

공지 사항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낮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봉사자

	오늘 주일(25일)	다음 주일(2일)
제1독서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정지원 클라라	
복사	이준서 마르티노/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44.60 • 교무금 € 0.00